

사무엘상 13:1의 번역 제안 — 사울의 즉위 나이와 ‘2년’의 역사적 의미 —

이공재*

1. 들어가는 말

기원전 12세기경 지금의 팔레스타인 해안 남부 평야 지역에 정착한 ‘블레셋’¹⁾에 관한 역사적 이해 없이는 사울의 생애, 사울 왕국의 탄생, 그리고 사울 왕국의 성장을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블레셋의 군사적 위협은 사울을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선택한 이유 중 하나였으며(삼상 9:16),²⁾ 사무엘서 기록 순서에 따르면, 왕으로서의 사울의 첫 번째 행동은 블레셋과

* Kirchliche Hochschule Wuppertal/Bethel에서 구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목원대학교 신학대학원 강사. stingpea@hotmail.com.

- 1) 블레셋에 관한 일반적인 역사와 구약 속 블레셋에 관하여는 C. Ehrlich, “Philister” (erstellt: Mai 2007), accessed 10 April 2021 from <https://www.bibelwissenschaft.de/>와 L. Niesiolowski-Spano, *Goliath's Legacy: Philistines and Hebrews in Biblical Times* (Wiesbaden: Harrassowitz Verlag, 2016), 31-39를, 고고학 자료를 통한 정보는 이스라엘 성서 고고학자 I. Finkelstein, “The Philistines in the Bible: A Late-Monarchic Perspective”, *JSOT* 27:2 (2002), 131-167의 주장을 참고하라.
- 2) 블레셋의 군사적 위협이 왕국 탄생에 유일한 요소였다는 A. H. J. Gunneweg, *Geschichte Israels: Von den Anfängen bis Bar Kochba und von Theodor Herzl bis zur Gegenwart*, 6. Aufl., ThW 2 (Stuttgart: Kohlhammer, 1989), 59의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이전에 A. Alt, “Die Staatenbildung der Israeliten in Palästina”, A. Alt, *Kleine Schriften zur Geschichte des Volkes Israel*, band II, 3. Aufl. (München: C. H. Beck, 1964), 1-7; 존 브라이트, 『이스라엘 역사』, 박문재 역, 1981년 제3증보판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3), 248-252; M. Noth, *Geschichte Israels*, 10. Aufl.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86), 153; 그리고 H. Donner, *Geschichte des Volkes und seiner Nachbarn in Grundzügen. Teil 1: Von den Anfängen bis zur Staatenbildungszeit*, GAT 4/1, 3. Aufl.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00), 197 등 많은 학자들의 주장처럼 여러 주요 요인 중 하나였다는 사실에는 동의한다.

의 전쟁이었다(삼상 13-14장). 그리고 그는 통치 기간 동안 끊임없이 블레셋과 전투를 벌였으며(비교, 삼상 14:47) 길보아산에서 벌어진 전투(삼상 31장)에서 그의 아들과 함께 최후를 맞이했다.

그러나 사무엘서에서 사울과 블레셋과 연관된 사건을 시간적 순서대로 재구성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어렵다. 첫째, 이들 사건들이 연, 월, 일 순서대로 기록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둘째, 이들 사건들이 때로는 역사적 사건을 전제하지만 신학적 관점에서 평가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셋째, 전체적으로 ‘사울 왕국은 실패했다.’라는 부정적인 평가를 전제로 재구성되었기 때문이다. 넷째, 이들 사건들이 친사울적인 관점보다는 다윗 왕조의 정당성을 부여할 목적으로 기록된 경우가 많았으며, 이러한 평가들은 소위 ‘신명기 역사가들’에 의해서 왕국 시대에 이미 존재했던 사울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재해석하는 과정에서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논의할 사무엘상 13:1, “벤 샤나 샤울 베말코 우쉐테 샤님 말락 알 이스라엘(בֶּן־שָׁנָה שְׁאוּל בְּמַלְכוֹ וּשְׁתֵּי שָׁנִים כָּלָךְ עַל־יִשְׂרָאֵל)”, 역시 신명기 역사가들의 언어가 사용된 대표적인 구절로 평가된다.³⁾ 왜냐하면 ‘누가 언제 즉위하고 몇 년 동안 통치하였다.’라고 기술하고 있는 유다 왕의 전형적인 연대기 형식(삼하 5:4; 왕상 14:21; 15:1-2, 9-10; 왕하 8:26; 12:1a; 21:1; 22:1; 23:31, 36; 24:8, 18 등)과 유사한 형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히브리어 본문을 직역한다면 상반절은 즉위 나이를 빈칸으로 남겨 놓아 ‘사울 그가 왕으로 통치했을 때 나이는 … 이다.’ 또는 ‘사울 그가 왕이 되었을 때는 한 살이었다.’라는 두 가지 번역 제안이 가능하며, 하반절은 ‘그는 이스라엘을 왕으로서 이 년 통치하였다.’라는 번역이 가능하다. 이와 달리 『개역개정』은 “사울이 왕이 될 때에 사십 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이 년에”로 번역하고 있다. 무엇보다 흥미로운 사실은 하반절을 사울의 ‘전체 통치 기간 2년’이 아닌 사울이 ‘즉위한 후 2년째 되는 해’로 읽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초기 사울 통치 체제에 관한 역사적 고찰을 통해 사무엘상 13:1상반에서 언급된 사울의 즉위 나이를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지 논하고자 한다. 이어서 사울과 블레셋과의 정치적 역학 관계에 관한 역사적 논쟁을 통해 하반절의 사울 통치 시기 ‘2년’에 관한 의구심을 해결하고 히브리어 원문에 충실한 사무엘상 13:1 전체 번역을 제안하고자 한다.

3) G. Hentschel, *Saul: Schuld, Reue und Tragik eines Gesalbten*, Biblische Gestalten 7 (Leipzig: Evangelische Verlagsanstalt, 2003), 64; O. Kaiser, “Der historische und der biblische König Saul (Teil I)”, *ZAW* 122 (2010), 527; W. Dietrich, *Samuel: 1 Sam 13-26*, BK.AT VIII/2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2015), 3.

이를 위해 먼저 본 구절에 대한 본문 비평과 함께 주요 우리말과 외국어 성서의 다양한 번역을 살펴볼 것이다.

2. 본문

2.1. 사무엘상 13:1에 대한 다양한 번역

다음의 주요 성서 번역본을 통해 사무엘상 13:1 번역의 어려움을 짐작할 수 있다.

『개역개정』	『표준』	『공동』	『새번역』
사울이 왕이 될 때에 사십 세 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이 년 에	사울이 왕이 될 때에 사십 세 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이 년 에	생략 ⁴⁾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의 나이는 서른 살 이었다.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것은 마흔두 해 였다.

위의 주요 우리말 번역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사울의 즉위 나이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과 히브리어 본문의 직역과 달리 서른 살 또는 마흔 살 등 비교적 늦은 나이에 사울이 왕이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울의 통치 기간 역시 일치된 의견보다는 『개역개정』의 번역처럼 사울의 ‘총 통치 기간 2년’보다는 ‘즉위한 지 2년’이 지난 후로 번역하거나 마흔두 해와 같이 상당히 긴 전체 통치 기간을 제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의 주요 영어 번역본은 사울 즉위 나이와 사울 전체 재위 기간에 관하여 우리말 번역본보다 좀 더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NIV	NAS	KJV/NKJ	NJB
Saul was thirty years old when he became king, and he reigned over Israel forty two years.	Saul was thirty years old when he began to reign, and he reigned forty two years over Israel.	Saul reigned one year ; and when he had reigned two years over Israel,	Saul was ... years old when he became king, and reigned over Israel for ... years.

4) 초기 칠십인역의 전통에 따라 『공동』은 1절 전체를 빈칸으로 남겨 놓았다.

그러나 사울 즉위 나이에 관하여는 여백으로 남겨 놓거나 사울 통치 기간을 2년(zwei Jahre)으로 번역하고 있는 다음의 주요 독일어 번역본은 비교적 히브리어 원문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LB	ZB	LB	EIN
Saul war ... Jahre alt , als er König wurde; und er regierte zwei Jahre über Israel.	Saul war ... Jahre alt, als er König wurde, und zwei Jahre lang war er König über Israel.	Saul war ... Jahre alt, als er König wurde, und zwei Jahre regierte er über Israel.	Saul war ... Jahre alt, als er König wurde, und er regierte zwei Jahre über Israel.

2.2. 1상반절: 사울 즉위 나이에 관한 신학적 논쟁과 번역 제안

위와 같이 사울 즉위 나이와 재위 기간에 대한 다양한 번역이 가능하다는 것은 그만큼 사울에 대한 정보가 불완전한 상태로 전승되었음을 반증한다. 먼저, 1상반절 שָׁאוּל בְּמַלְכוּתוֹ는 사울 즉위 나이와 연관된 구절이다. 이에 대한 번역을 다음의 세 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첫째, 히브리어 원문과 무관하게 구체적인 숫자가 언급되는 경우이다. 예를 들면, 사울 즉위 나이는 30세 또는 40세처럼 비교적 낮은 나이가 제시된다. ‘30’이라는 숫자는 다윗의 즉위 나이(삼하 5:4)와 ‘40’⁵⁾은 이스보셋의 즉위 나이(삼하 2:10)와 연관되어 언급되었을 가능성이 높다.⁶⁾ 그중에서도 사울 나이 40살은 이어지는 이야기 속에서 용맹한 장수로 성장한 요나단의 존재를 감안할 때 현실성 있는 숫자일 수도 있다.⁷⁾ 그러나 사울은 여타의 구약 본문에서 (삿 14:10; 삼상 8:16 등) 언급된 바후르(בְּחֹר)처럼 결혼하지 않은 젊은 청

5) 이외에도 40년 광야 생활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구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한 세대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이후에 도래할 새로운 세대를 준비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사울이 40세에 왕으로 즉위했다는 사실을 통해서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전환되는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40’이라는 숫자를 언급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6) D. V. Edelman, “Saul”, D. N. Freedman, ed., *ABD*, vol. 5 (New York: Doubleday, 1992), 992; S. Kreuzer, “Saul war noch zwei Jahre König ...: Textgeschichtliche, literarische und historische Beobachtungen zu 1 Sam 13,1”, *BZ* 40 (1996), 263.

7) 랄프. W. 클레인, 『사무엘상』, WBC 성경주석 10, 김경열 역 (서울: 솔로몬, 2004), 176, 226의 주장처럼, 20세 이상의 남자는 전투에 참가할 수 있었기 때문에(민 1:3; 26:2), 요나단은 20세 이상의 성인일 가능성이 높다.

8) W. Gesenius, *Hebräisches und Aramäisches Handwörterbuch über das Alte Testament*, 18. Aufl. (Berlin: Springer Verlag, 1987), 136.

년으로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삼상 9:1),⁹⁾ 늦은 나이에 즉위한 것과는 상당한 시간적 차이가 있다.

둘째, הַיָּלֵדִים 를 ‘한 살의 아들’, 즉 ‘한 살’로 읽어 사울의 즉위 나이를 한 살로 읽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 살’은 사울의 실제 즉위 나이가 아닌 상징적인 의미로 이해한다. 예를 들면, 랍비 및 탈무드 전통에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선택된 몇 가지 이유로 용맹함, 뛰어난 외모, 겸손, 명문 가문 출신, 그리고 **한 살 어린아이처럼 죄가 없는 순수함**을 꼽았다.¹⁰⁾ 또는 일 년 된 수송아지나 숫양(레 23:12; 민 6:12; 29:36)이 YHWH에게 봉헌되기에 완벽히 성장한 제의 예물을 상징하는 것처럼, 사울 역시 왕으로 즉위하기에 완벽하게 성숙한 나이에 즉위했다는 것을 상징한다는 것이다.¹¹⁾

셋째, ‘ $\text{שָׁנָה} \dots \text{בֶּן}$ ’로 읽는 주요 독일 번역본처럼 본 구절을 번역할 때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지 않고 생략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구약에서 한 인물의 구체적 나이를 언급할 때 בֶּן 과 שָׁנָה 사이에 구체적인 숫자가 함께 언급되었다. 아혼아홉 살 ‘벤 티슈임 사나 베테샤아 샬림($\text{בֶּן־תִּישׁוּיִם שָׁנָה וְתִשְׁעֵי שָׁנִים}$)’ 아브라함(창 17:1), 마흔 살 ‘벤 아르바임 사나($\text{בֶּן־אַרְבָּעִים שָׁנָה}$)’ 이스보셋(삼하 2:10)과, 마흔한 살 ‘벤 아르바임 베아하트 사나($\text{בֶּן־אַרְבָּעִים וְאַחַת שָׁנָה}$)’ 르호보함(왕상 14:21)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그러나 사울의 경우 구체적인 숫자가 제시되지 않은 이유를 빈-눈(Sh. R. Bin-Nun)¹²⁾은 즉위 나이와 재위 기간이 함께 언급되는 유다 왕의 연대기의 진술 방식과 달리 나답(왕상 15:25), 엘라(왕상 16:8), 예후(왕하 10:36) 그리고 여로보암 2세(왕하 14:23)와 같이 즉위 나이를 생략하는 북왕국 왕의 연대기의 특성에서 찾았다. 그러나 이들은 19명의 북왕국 왕 중에서 일부에 해당되기 때문에 북왕국 왕의 연대기의 특징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일부 학자들은 주변 국가의 몇몇 왕의 연대기에서 실수로 왕의 즉위 나이를 잊고 빈칸으로 남겨 놓은 몇몇 예를 근거로 단순한 실수일

9) W. Richter, *Die sogenannten vorprophetischen Berufsberichte: Eine literaturwissenschaftliche Studie zu 1 Sam 9,1-10,16, Ex 3f. und Ri 6,11b-17*, FRLANT 101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70), 30; R. Kessler, *Samuel: Priester und Richter, Königsmacher und Prophet*, Biblische Gestalten 18 (Leipzig: Evangelische Verlagsanstalt, 2007), 140-141.

10) B. Bayer, “Saul. In the Aggadah”, F. Skolnik, ed., *Encyclopedia Judaica*, vol. 18, 2nd ed. (Macmillan: Keter Publishing House, 2007), 80.

11) P. K. McCarter, *1 Samuel: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Notes and Commentary*, AncB, vol. 8 (New York: Doubleday, 1995), 222; F. Stolz, *Das erste und zweite Buch Samuel*, ZBK.AT 9 (Zürich: Theologischer Verlag, 1981), 81.

12) Sh. R. Bin-Nun, “Formulas from Royal Records of Israel and of Judah”, *VT* 18 (1968), 420-422.

가능성을 제시했지만,¹³⁾ 이 또한 한정적인 예에 불과하다.

오히려 사울이 언제 왕으로 즉위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여백으로 남겨 놓았을 가능성이 높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많은 학자들에 주장하는 것처럼 사울은 처음부터 왕정 국가(kingdom)의 왕(king)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베냐민 지파의 지도자에서 출발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¹⁴⁾ 그리고 크나우프(E. A. Knauf)¹⁵⁾의 주장처럼 ‘왕’은 일반적으로 관료 조직과 군사 및 조세 제도가 어느 정도 체계화된 정치 체제의 통치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러한 정치 제도가 아직 빈약한 사울의 통치 초창기를 ‘왕정’으로 이해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울은 마지막까지 안정적으로 베냐민 지파에 속한 친족 사회의 지도자였을 뿐, 왕의 지위를 얻지 못했다는 세르기(O. Sergi)¹⁶⁾나 카이저(O. Kaiser)¹⁷⁾의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 이들의 지적처럼 사울의 관료 및 행정 조직은 요나단과 아브넬을 등용한 친족 중심이었으며 빈약했던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사울은 지속적으로 자신의 영향력을 베냐민 지파 영역 밖으로 넓히려고 노력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사울이 일부 주변 국가와 벌인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사실(삼상 14:47)을 통해서 증명된다. 또한 사울은 왕실의 양식과 제의 예물로 사용되는 가축을 담당하는 관료로 에돔 출신 도엑을 임명하고, 자신의 두 딸¹⁸⁾을 다른 혈족 또는 다른 지파 출신의 남자와

13) 그 예는 S. Kreuzer, “Saul war noch zwei Jahre König ...”, 266, 각주 16과 17에서 언급된 문헌을 참고하라.

14) L. Schmidt, *Menschlicher Erfolg und Jawes Initiative: Studien zu Tradition, Interpretation und Historie in Überlieferungen von Gideon, Saul und David*, WMANT 38 (Neukirchen: Neukirchener Verlag, 1970), 90-91; D. M. Gunn, *The Fate of King Saul: An Interpretation of a Biblical Story*, JSOT.S 14 (Sheffield: JSOT Press, 1980), 115-131; U. Berges, *Die Verwerfung Sauls: Eine thematische Untersuchung*, FzB 61 (Würzburg: Echter, 1989), 218-219와 같은 학자들은 사무엘이 사울을 백성을 다스릴 왕, ‘멜렉(מֶלֶךְ)’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위협으로부터 구원할 군사 지도자인 ‘나기드(נָגִיד)’로 선택했다(삼상 10:1)고 주장하였다. 소형근, “히브리어 ‘나기드’(נָגִיד) 번역에 대한 제언”, 『성경원문연구』 34 (2014), 290 역시 ‘나기드’를 왕보다는 블레셋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군사적 지도자로 이해하였다.

15) E. A. Knauf, *Die Umwelt des Alten Testaments* (Stuttgart: Verlag Katholisches Bibelwerk, 1994), 126.

16) O. Sergi, “Saul, David, and the Formation of the Israelite Monarchy: Revisiting the Historical and Literary Context of 1 Samuel 9 - 2 Samuel 5”, J. J. Krause, O. Sergi, and K. Weingart, eds., *Saul, Benjamin, and the Emergence of Monarchy in Israel: Biblical and Archaeological Perspective* (Atlanta: SBL Press, 2020), 78.

17) O. Kaiser, “Der historische und der biblische König Saul (Teil I)”, 523.

18) 메랍은 아드리엘(삼상 18:19)과, 미갈은 처음에 다윗(삼상 18:27)과 이후에 발디(삼상

정략적으로 결혼시켰다. 니만(M. Niemann)은 사울의 이러한 노력이 자신의 영향력을 넓히려는 정치적 의도를 뒷받침한다고 주장하였다.¹⁹⁾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사울의 초기 정치 형태를 평가한다면, 그는 분명 왕정 국가의 왕보다는 유력한(삼상 9:1) 집안 출신으로 베냐민 지파 중심인 군장 국가(chiefdom)의 지도자²⁰⁾로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한정된 영토를 넘어 관료 및 행정 체제가 갖춰진 이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통치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²¹⁾ 이와 같은 이유에서 사울의 업적을 기록한 후대 기록자가 사울에 대한 정확한 정보 없이 사울이 언제 한 지파의 지도자에서 왕으로 즉위하여 이스라엘을 통치했는지를 논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다.²²⁾ 결국 이어지는 ‘(사울) 그가 왕으로 통치했을 때에’로 번역되는 **בְּמַלְכוֹ**와 함께 **בְּיָמָיו**를 번역한다면, 구체적인 사울의 즉위 나이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사울 그가 왕으로 통치했을 때에 그의 나이는 ... 이다(또는 알 수 없다).**’라고 빈칸으로 남겨 놓은 상반절 번역이 타당할 것이다.

2.3. 1하반절: 사울 통치 기간 ‘2년’에 대한 신학적 논쟁

사울의 통치 기간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하반절 **שְׁנַיִם שָׁנִים מָלַךְ עַל-יִשְׂרָאֵל**을 원문에 충실히 직역한다면, ‘그리고 그는(사울은) 이스라엘을 이 년 통치했다.’, 즉 사울왕의 전체 통치 기간은 2년이다. 그러나 이러한 번역은 다음의 두 가지 이유에서 의구심을 품게 된다. 첫째, 구약에서 ‘2년’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일반적인 두 가지 표현, 년(年)을 뜻하는 ‘샤나(שָׁנָה)’의 쌍수 형태인 ‘쉐나타임(שְׁנַתַּיִם)’ 형태²³⁾ 또는 **שָׁנָה**의 복수인 ‘샤님(שָׁנִים)’과 숫자 2의 여성 절대형 ‘쉐타임(שְׁתַּיִם)’의 조합인 ‘쉐타임 샤님(שְׁתַּיִם שָׁנִים)’²⁴⁾이 사용되

25:44)와 결혼한다.

19) H. M. Niemann, *Herrschaft, Königtum und Staat: Skizzen zur soziokulturellen Entwicklung im monarchischen Israel*, FAT 6 (Tübingen: Mohr Siebeck, 1993), 3-5.

20) J. W. Flanagan, “Chiefs in Israel”, *JSOT* 20 (1981), 65-69; R. Kessler, “Chiefdom oder Staat? Zur Sozialgeschichte der frühen Monarchie”, R. Kessler, *Studien zur Sozialgeschichte Israels*, SBAB 46 (Stuttgart: Katholisches Bibelwerk, 2009), 157-158; E. A. Knauf, “Saul, David, and the Philistines: From Geography to History”, *BN* 109 (2001), 15.

21) F. S. Frick, “Social Science Methods and Theories of Significance for the Study of the Israelite Monarchy: A Critical Review Essay”, *Semeia* 37 (1986), 19-22; S. Kreuzer, “»War Saul auch unter den Philistern?«: Die Anfänge des Königtums in Israel”, *ZAW* 113 (2001), 72-73은 이를 위해서 약 15-2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다고 주장하였다.

22) F. Stolz, *Das erste und zweite Buch Samuel*, 83의 주장과 비교하라.

23) 나답(왕상 15:25), 엘라(왕상 16:8) 그리고 아하시야(왕상 22:51).

24) 이스보셋(삼하 2:10)과 아몬(왕하 21:9).

지 않고 유일하게 본 구절에서만 **שְׁנַיִם וְשָׁנִים**이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앞에서 언급한 주요 번역본²⁵⁾에서 확인한 것처럼 사울의 통치 기간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사울 통치 기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크게 히브리어 원문이 제시하고 있는 숫자 ‘2’를 수정해서 해석하는 것과, 수정하지 않고 해석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사울 통치 기간을 2년으로 보기에 너무나 짧기 때문에 그보다 긴 통치 기간을 제시하는 경우다. 사울이 길보아산 전투에서 3명의 아들과 함께 전사했음에도 불구하고(삼상 31:2), 마하나임에서 이스보셋이 왕위를 계승한 후 2년 동안 통치했다는 사실(삼하 2:10)은 사울의 통치가 상당 기간 동안 비교적 견고히 지속되었음을 말해 준다.²⁶⁾ 또한 빈약하지만 행정 조직을 구성하고(삼상 14:50; 21:7), 여기에 정규군을 모집하고 주변 여러 국가와 공격적인 전쟁을 수행하는 사울의 모습(삼상 14:47-48, 52)은 한 지파의 지도자보다는 비교적 안정된 힘을 갖춘 왕을 연상시킨다. 그리고 사울이 주변 여러 국가와 공격적인 전쟁을 준비하고 감행하기까지는 분명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다. 이에 에델만(D. V. Edelman)은 블레셋을 제외한 주변 국가와 벌인 전쟁에 최소 6년, 그리고 블레셋과의 세 번의 큰 전쟁(삼상 13-14장; 17장; 29-31장)을 치른 기간을 포함하면 최소 8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했다고 주장하였다.²⁷⁾ 이를 통해서 그녀는 사울왕의 통치 기간을 숫자 ‘2’에, 십의 자리 수를 수정한 ‘12년’과 ‘22년’을 제안하였으며, 그중 22년을 가장 가능성 있는 숫자라고 보았다.

이와 다르게 사도행전 13:21과 요세푸스²⁸⁾는 ‘40년’이라는 사울의 통치 기간을 제시한다.²⁹⁾ 40년이라는 통치 기간은 사울 전후의 주요 인물인 엘리(삼상 4:18), 다윗(삼하 5:4) 그리고 솔로몬(왕상 11:42)의 통치 기간과 연관되어 제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또 다른 제안으로 앞에서 언급한 주요 번역본과 최근에 발견된 사본은 본문에서 실수로 기록되지 않은 십의 자리 숫자 ‘40’에 본문에서 언급된 숫자 ‘2’를 함께 읽어서 42년의 통치 기간을

25) 시리아 역본인 페쉬타 경우는 사울 통치 기간에 해당하는 숫자를 아예 생략한다.

26) 이외에도 S. Bar-Efrat, *Das Erste Buch Samuel: Ein narratologisch-philologischer Kommentar*, BWANT 176 (Stuttgart: Kohlhammer, 2007), 191은 사울의 유능한 장군에서 그의 사위가 된 다윗이 가드 왕 아기스에 망명한 시간만 16개월(삼상 27:7)이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사울의 통치 기간은 최소 2년 이상이라고 주장하였다.

27) D. V. Edelman, “Saul”, 992-993. 이와 달리 M. Noth, *Geschichte Israels*, 163은 사울의 재위 기간인 2년 동안 이 모든 전쟁을 수행했다고 주장하였다.

28) 요세푸스는 6권(378)에서는 사무엘이 생존했을 때 18년과 사무엘 사후 22년, 총 40년을 언급했지만, 10권(143)에서는 근거 없이 20년을 제안했다.

29) L. McFall, “The Chronology of Saul and David”, *JETS* 53 (2010), 500-501도 40년 통치 기간을 제시했으며, 그중 재위 14년째에 YHWH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주장하였다.

주장한다. 엡슨(A. Jepsen)³⁰⁾은 좀 더 구체적으로 본문에서 숫자 2에 해당하는 שְׁנַיִם 는 숫자 9, ‘테샤아(טֵשָׁא)’를 최종 편집자가 잘못 읽고 기록했기 때문에 사울은 40살에 즉위하여, 9년 후 그의 손자 르비보셋이 5살 때(삼하 4:4)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들은 사울왕의 통치 기간을 최소 2년 이상으로 보았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사울이 언제 베냐민 지파의 지도자에서 이스라엘 왕으로 통치하기 시작했는지에 관한 정확한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사울의 전체 통치 기간을 논하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 그리고 사울의 통치 기간을 12년, 20년, 22년 또는 42년으로 제안하는 것 역시 구체적인 근거 없이 히브리어 원문에서 언급된 숫자 2에, 십의 자리나 일의 자리에 숫자를 첨가해서 얻은 기간에 불과하다.

이와 달리 다음의 세 가지 주장들은 히브리어 본문의 숫자 ‘2’를 수정하지 않고 읽는다. 첫째, 앞에서 언급한 주요 독일어 번역본처럼 사울왕의 통치 기간을 실제 2년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³¹⁾ 뎀머(P. Mommer)³²⁾는 사무엘상 14:50에서 언급된 빈약한 관료 및 행정 조직이 사울 왕국의 2년이라는 짧은 통치 기간을 반증한다고 말하였다. 퍼스(D. G. Firth)³³⁾ 역시 블레셋과의 첫 번째 전쟁(삼상 13-14) 이전까지 사울은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의 실질적인 통치 기간은 2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울의 실제 통치 기간은 최소 2년 이상일 가능성이 높다.

둘째, 2년간의 사울 통치 기간을 역사적 기간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예를 들면, 길모어(R. Gilmour)와 영(I. Young)은 2년이라는 짧은 사울의 통치 기간을 불안정적인 사울 왕권을 상징하는 숫자로 해석했다. 그들은 이를 위해서 구약에서 언급된 유다 왕 아몬을 제외하고 2년간 통치한 북왕국의 왕들(이스보셋, 나답, 엘라, 아하시야, 브가히야)을 예로 들었다. 이들 모두 왕조의 마지막 왕이거나 바로 왕조 교체 직전의 왕이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왕국을 이끌지 못했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다.³⁴⁾ 갈릴(G. Galil)³⁵⁾은 사울의 통치 기간을 2년으로 언급한 것은

30) A. Jepsen and R. Hanhart, *Untersuchungen zur israelitisch-jüdischen Chronologie*, BZAW 88 (Berlin: Walter de Gruyter, 1964), 44.

31) 이미 H. Seebass, “Die Vorgeschichte der Königserhebung Sauls”, *ZAW* 79 (1967), 168, 각주 49; R. Althann, “1 Sam 13,1: A Poetic Couplet”, *Bib* 62 (1981), 242; M. Noth, *Geschichte Israels*, 163 그리고 U. Berges, *Die Verwerfung Sauls*, 163 등 많은 학자들이 이를 주장하였다.

32) P. Mommer, “Saul”, G. Müller, u. a., hrsg., *TRE* 30 (Berlin: Walter de Gruyter, 1999), 58.

33) D. G. Firth, *1 & 2 Samuel*, Apollos Old Testament Commentary, vol. 8 (Nottingham: Apollos, 2009), 153.

40년 동안 통치하여 성공한 왕으로 평가받는 다윗(삼하 5:4)과 비교해서 사울을 실패한 왕으로 평가하기 위한 신명기 역사가들의 작품이라고 주장하였다. 맥폴(L. Mcfall)³⁶⁾과 캠벨(A. F. Campbell)³⁷⁾은 사울이 왕으로 즉위한 후 2년에 YHWH로부터 버림받았기 때문에 2년 동안만 YHWH로부터 왕으로 인정을 받았다고 신학적 관점에서 해석하였다. 그러나 이 주장은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제안한 것이 아니라 신학적 관점에서 해석했다는 한계가 있다.

셋째, 『개역개정』과 『표준』의 번역처럼 사울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이년, 즉 이어지는 블레셋과의 전쟁이 시작된 해가 즉위 2년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울의 즉위 시기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난 시기를 사울 통치 후 2년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 또한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 정도로 유능한 전쟁 용사로 성장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면, 사울 통치 초기 상황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2.4. 변화된 블레셋과의 역학 관계를 통한 1하반절 번역 제안

블레셋은 분명 이집트, 아시리아 또는 바빌로니아와 같은 강대국은 아니었다. 그러나 주변 국가와 비교해서 발전된 철기 문명과 이를 활용한 무기와 농기구 가공 기술을 통해서 기원전 11세기 이후 그들의 영향력을 자신들의 영토 밖으로 확대하려고 지속적으로 시도하였다.³⁸⁾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은 사사 시대에(삿 13-16장) 이미 블레셋의 군사적 위협을 경험하게 되었으며, 이스라엘에 대한 지속적인 블레셋의 군사적 우위는 사울이 등장하기 직전 아백과 에벤에셀에서의 처참한 패배(삼상 4장)를 통해서도 확인된다.³⁹⁾ 결국 이 패배로 아백을 기점으로 요르단으로 넘어가는 무역로에 위치한 기브아(삼상 10:5)⁴⁰⁾, 게바(삼상 13:3) 그리고 믹마스(삼상 13:23)

34) R. Gilmour and I. Young, "Saul's Two Year Reign in 1 Samuel 13:1", *VT* 63 (2003), 152-154.
 35) G. Galil, "The Chronological Framework of the Deuteronomistic History", *Bib* 85 (2004), 417.
 36) L. McFall, "The Chronology of Saul and David", 481-483.
 37) A. F. Campbell, *1 Samuel*, FOTL 7 (Grand Rapids: Eerdmans, 2003), 136; D. T. Tsumura, *The First Book of Samuel*, NICOT (Grand Rapids: Eerdmans, 2007), 333.
 38) I. Finkelstein, "The Emergence of the Monarchy in Israel: the Environmental and Socio-Economic Aspects", *JSOT* 14:44 (1989), 58-60; C. S. Ehrlich, *The Philistines in Transition: A History from ca. 1000-730 B.C.E* (Leiden: Brill, 1996), 9-21.
 39) W. Dietrich, *David: Der Herrscher mit der Harfe*, Biblische Gestalten 14 (Leipzig: Evangelische Verlagsanstalt, 2006), 146.

와 같은 이스라엘 주요 도시에 블레셋 수비대가 주둔하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⁴¹⁾ 이는 지중해 연안에 위치했던 블레셋이 이스라엘 영토인 에브라임 산지 깊숙이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장했다는 것과 요르단 동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통로를 확보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지속적인 블레셋의 위협은 사울이 등장할 수 있었던 공간을 제공해 주었으며(삼상 9:16), 사울은 길보아산에서 전사하기까지 일생 동안 블레셋과 치열하게 싸웠다(삼상 14:52). 그리고 사무엘상 17장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상당 기간 동안 고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1-11절).⁴²⁾ 아마도 이 전쟁에서 요나단이 언급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사울 통치 초창기 상황일 가능성이 높다.

이외에 사무엘상에서 사울이 블레셋과 벌인 전쟁 중 비교적 상세히 기술된 전쟁은 총 두 개이다. 그중 하나는 사울의 통치 기간 2년이라는 구절과 함께 시작되는 13-14장이다. 13장은 흐름상 ‘7일’이라는 시간(8절)과 ‘길갈’이라는 공간(4, 8절)을 통해서 사울 통치 초기 상황인, 사울이 왕으로 선택 받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사무엘상 10:8과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밀러(J. M. Miller)는 이 전쟁을 통해서 사울은 베냐민 지파로부터 자신의 왕위를 인정받았다고 주장하였다.⁴³⁾ 그러나 13장은 기브아(삼상 13:2; 14:2, 16), 게바(삼상 13:3, 16; 14:5) 그리고 믹마스(삼상 13:5, 16, 23; 14:1, 4, 11, 31)라는 공간 속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과 벌인 전쟁이라는 점에서 이어지는 14장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의 수비대를 공격해서 승리⁴⁴⁾를 이룰 정도로 군대 조직이

40) 삼상 10:5상 **בְּנֵי־הַצִּיּוֹן**를 우리말 성경은 ‘산’ 또는 ‘언덕’으로 번역하지만 도시 ‘기브아’로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금재, “사울 왕국과 블레셋의 정치적 관계 연구를 통한 사무엘상 10:5상 **בְּנֵי־הַצִּיּוֹן**의 번역 제안”, 『성경원문연구』 45 (2019), 15-22를 참고하라.

41) S. Kreuzer, “»War Saul auch unter den Philistern?«, 58.

42) W. Dietrich, “Die Erzählungen von David und Goliath in I Sam 17”, *ZAW* 108 (1996), 180의 주장처럼, 17장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골리앗에 대한 다윗의 승리는 후대에 첨가된 내용이다.

43) J. M. Miller, “Saul’s Rise to Power: Some Observations Concerning 1 Sam. 9.1-10.16; 10.26-11.15 and 13.2-14.46”, *CBQ* 36 (1974), 164-167.

44) 아마도 기브아(삼상 13:15; 14:2)에 주둔하고 있던 사울이 블레셋의 수비대를 공격한 이야기(삼상 13:4)와 요나단의 주도하에 블레셋 수비대가 주둔한 게바(삼상 13:3)와 믹마스(삼상 13:5, 23; 14:4, 31)를 공격한 이야기가 하나로 결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여는 H. J. Stoebe, “Zur Topographie und Überlieferung der Schlacht von Mikmas, 1 Sam 13 und 14”, *ThZ* 21 (1965), 277-279와 달프 W. 클레인, 『사무엘상』, 176, 226-227; W. Dietrich, *Samuel: 1 Sam 13-26*, 10-12, 72-75; W. Dietrich, *Samuel: 1 Sam 13-26*, 9-10, 28-29를 참고하라. 이와 달리 F. Stolz, *Das erste und zweite Buch Samuel*, 83은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과 함께 벌인 하나의 전쟁에 관한 전승으로, O. Kaiser, “Der historische und der biblische König Saul (Teil II)”, *ZAW* 123 (2011), 2-3은 요나단의 영웅적 전쟁 이야

체계화되고 상당수의 상비군이 조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삼상 13:2, 15), 이는 사울의 통치 시간이 상당히 흘러 그의 통치 체제가 비교적 안정되었음을 말해 준다.

또 다른 전쟁은 사울과 요나단이 함께 전사한 사무엘상 (28장에서 시작되어) 31장에서 언급된 길보아산에서 벌인 마지막 전쟁이다. 언뜻 보기에는 사무엘상 기록 순서상 13-14장과 31장은 서로 연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두 전쟁은 두 용사가 함께 출전하여 블레셋과 벌인 전쟁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그리고 사울의 잘못된 서원(삼상 14:39)은 길보아 전투에서의 요나단의 죽음(삼상 31:2)을 이미 전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함께한 첫 번째 블레셋과의 전쟁은 마지막 전쟁과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사울이 블레셋과 벌인 여러 전쟁 중 13-14장의 전쟁이 정치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사울이 블레셋과 벌인 전쟁 중 첫 번째 승리였다는 것에만 있지 않다. 왜냐하면 이 전쟁을 언급한 13-14장 속에서 이전과 다른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변화된 정치적 역학 관계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왕국의 수도 기브아(삼상 10:26; 11:4; 13:15; 14:2; 22:6; 26:1)에 상당수의 사울의 정규군이 머물렀다는 사실(삼상 13:2; 14:2)은 그곳에 머물렀던 블레셋 수비대가 이미 축출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반대로 이전에 블레셋 수비대가 기브아에 주둔했다는 사실(삼상 10:5)은 사울 왕조 초기에는 블레셋의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는 것을 말한다.⁴⁵⁾

두 번째, 사울이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하고(삼상 13:4), 요나단 역시 게바(삼상 13:3, 16)와 믹마스에 머물렀던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삼상 13:23; 14:11, 31)하여 승리를 이끌었다는 것이다. 이 승리는 사울이 이스라엘 영내에 주둔했던 블레셋 수비대를 그들의 본국으로 추방했다는 것(삼상 14:46)과, 일시적으로 블레셋의 군사적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는 우발적으로⁴⁶⁾ 요나단이 블레셋을 공격한 것도 아니었으며, 블

기(삼상 13:2-3a, 5-6, 15b-18, 23; 14:1)에 부정적인 사울 이야기(삼상 13:8-15상)가 후대에 첨가되었다고 주장하였다.

45) 이를 다르게 표현한다면, H. M. Niemann, "Nachbarn und Gegner, Konkurrenten und Verwandte Judas: Die Philister zwischen Geographie und Ökonomie, Geschichte und Theologie", U. Hübner and E. A. Knauf, hrsg., *Kein Land für sich allein: Studien zum Kulturkontakt in Kanaan, Israel/Palästina und Ebirnäri für Manfred Weippert zum 65. Geburtstag*, OBO 186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02), 83과 W. Dietrich, *Samuel: 1 Sam 1-12*, BK.AT VIII/1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2010), 429의 주장처럼 초기 사울의 통치는 블레셋의 묵인 하에 가능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46) D. V. Edelman, *King Saul in the Historiography of Judah*, JSOT.S 121 (Sheffield: JSOT Press, 1991), 77.

레셋과의 현 체제를 유지하려는 사울에 반한 요나단의 독단적인 군사 행동⁴⁷⁾ 역시 아니었다. 어찌 보면 사울은 자신의 왕국의 안정화를 위해서 블레셋의 수비대가 주둔하는 믹마스과 게바를 성공적으로 공략하는 것이 필수적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사울과 요나단의 주도하에 이스라엘 영토 내에 주둔하고 있던 블레셋 수비대에 대한 성공적인 두 번의 군사 행동은 전체 사울 왕조와 블레셋과의 정치 관계의 전환점이 된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건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⁴⁸⁾

이후 블레셋은 요르단 동쪽의 비옥한 땅을 차지하기 위한 교두보이자 요르단 동쪽으로 넘어가는 관문인 아벡에 집결하여(삼상 28:1; 29:1-2) 사울과 전면전을 준비한다. 그러나 이 전쟁에서 사울은 요나단을 포함한 3명의 아들과 함께 전사하였으며(삼상 31장), 블레셋은 다시 이스라엘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정치적 이유에서 이스보셋은 블레셋의 영향권 밖인 요르단 동쪽 마하나임에서 왕조를 이을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이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과 벌인 두 번의 전쟁을 통해서 블레셋과의 정치적 역학 관계의 큰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결국, 사무엘상 13:1 하반에서 언급된 2년이라는 숫자는 사울의 전체 통치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처음으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후 블레셋의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난 순간부터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하기까지 사울 통치 **마지막 2년**⁴⁹⁾이라는 특정 기간⁵⁰⁾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의 논쟁을 통해서 사울의 즉위 나이와 통치 기간 ‘2년’이 언급된 사무엘상 13:1에 대한 번역을 이어지는 2절과 함께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47) S. Kreuzer, “»War Saul auch unter den Philistern?«, 71과 그의 또 다른 논문 S. Kreuzer, “Saul – not always – at War: A New Perspective on the Rise of Kingship in Israel”, C. S. Ehrlich and M. C. White, eds., *Saul in Story and Tradition*, FAT 47 (Tübingen: Mohr Siebeck, 2006), 52-53; G. Hentschel, *Saul*, 87-88과 W. Dietrich, *Samuel: 1 Sam 13-26*, 72-75도 요나단의 독자적 군사 행동에 동의한다.

48) S. Kreuzer, “»War Saul auch unter den Philistern?«, 72; O. Kaiser, “Der historische und der biblische König Saul (Teil II)”, 9.

49) S. Kreuzer, “Saul – not always – at War”, 56: “**These events encompassed Saul’s last two years as king.**”

50) 헤브론에서 7년 6개월과 예루살렘에서 33년 통치한 다윗(삼하 5:5), 솔로몬 제 4년에 시작된 예루살렘 성전 건축(왕상 6:1), 히스기야 제14년에 있었던 산헤립의 침략(왕하 18:13), 요시아 제18년에 시작한 성전 공사와 율법책의 발견(왕하 22:3), 그리고 여호야김 제3년에 있었던 느부갓네살의 침략(왕하 24:1)과 같이 한 왕의 재위 기간을 특정 시기로 구분한 또 다른 예를 구약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사울이 왕으로 즉위한 나이는 알 수 없지만,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마지막⁵¹⁾ 2년에⁵²⁾, 이스라엘 사람 삼천 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일천 명은 자기와 함께 므마스⁵³⁾와 베엘 산에 있게 하고 일천 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3. 나가는 말

지금까지 사울왕의 즉위 나이와 통치 기간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 사무엘상 13:1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 구절에 대한 히브리어 본문(BHS)은 사울 즉위 나이에 관한 구체적인 숫자를 언급하지 않고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의 사울 통치 기간을 짐작하게 하는 사무엘서 전체 내용과 상반되는 비교적 짧은 ‘2년’이라는 통치 기간을 제시한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자연스럽게 이 본문이 사울에 관하여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역사적 사실을 품고 있는가에 대한 신학적 의구심이 본 연구의 출발점이었다.

먼저 본 연구에서 베냐민 지파의 지도자로 출발한 사울이 언제 이스라엘 왕으로 즉위했는지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그의 즉위 나이를 여백으로 남겨 놓은 사무엘상 13:1상반이 역사적 사실을 반영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사울의 즉위 시기를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의 전체 통치 기간을 제시하는 것 역시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한 왕의 전체 통치 기간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즉위 나이에 대한 정보는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결국 하반절에서 언급된 ‘2년’은 사울의 전체 통치 기간 ‘2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 통치 기간 중 특별한 의미를 지닌 ‘2년’으로 볼 수 있다. 그 ‘2년’은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 수비대가 주둔한 도시, 게바나 므마스를 공격하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의 승리를 통해서 사울은 블레셋을 일시적으로 이스라엘 영내 밖으로 추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아

51) ‘마지막’을 삽입하는 것에 대하여 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본 번역처럼 ‘마지막 몇 년’ 또는 ‘마지막 며칠’과 같이 일정 기간을 뜻하는 한정사로 ‘마지막’을 표현할 수 있는 적절한 성서 히브리어 단어가 없다는 분명한 한계 역시 감안해야 한다. 예를 들면, ‘아하론(אֲהָרֹן)’이 ‘마지막’을 뜻하는 단어로 우리말 성경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지만, 시간적 관점에서 ‘마지막 때’(단 8:23; 11:35; 12:4, 9), ‘마지막 날’(단 10:14; 호 3:5) 또는 처음과 대비되는 ‘마지막’(사 44:6; 48:12)을 뜻하거나, 공간적 관점에서 ‘마지막 장소’(민 10:25)를 의미할 뿐 특정한 일정 기간을 전제하는 한정사로 사용되지는 않았다. 결국 성서 히브리어가 갖는 이러한 언어적 어려움을 고려한다면, 전체 문맥을 좀 더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원문에는 없는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첨언해서 읽을 수 있을 것이다.

52) 이미 S. Kreuzer, “Saul war noch zwei Jahre König ...”, 268-269는 사울 통치 마지막 ‘2년’으로 하반절 번역을 제안했지만, 즉위 나이에 관하여는 언급하지 않았다.

쉽게도 사울은 길보아산에서 벌어진 블레셋과의 전면전에서 전사함으로써 블레셋과 연관된 역사적으로 중요한 그 ‘2년’을 마감한다(삼상 31장). 이처럼 사무엘상 13:1은 비록 사울이 처음부터 전형적인 왕의 모습으로 시작하지 못했지만 그에 대한 후대의 최종적 평가는 이전 블레셋과의 종속적인 정치적 역학 관계를 변화시킨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사무엘상 13:1은 단지 사울왕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만을 제공하려는 목적에서 기술된 것이 아니라, 사울부터 유다 왕국 멸망과 여호야긴의 석방까지 약 500년의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의 긴 역사를 다루는 ‘신명기 역사서’의 긴 호흡의 일부임을 알 수 있다.

<주제어>(Keywords)

사무엘상 13:1, 사울, 사울의 즉위 나이, 사울의 재위 기간, 블레셋.
1 Samuel 13:1, Saul, Saul’s Accession age, Saul’s Reign, Philistines.

(투고 일자: 2021년 7월 30일, 심사 일자: 2021년 8월 20일, 게재 확정 일자: 2021년 10월 19일)

<참고문헌>(References)

- 브라이트, J., 『이스라엘 역사』, 박문재 역, 1981년 제3증보판,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3.
- 소형근, “히브리어 ‘나기드’(נָגִיד) 번역에 대한 제언”, 『성경원문연구』 34 (2014), 289-293.
- 이궁재, “사울 왕국과 블레셋의 정치적 관계 연구를 통한 사무엘상 10:5상 ‘מַלְאָכָה וְנָגִיד’의 번역 제안”, 『성경원문연구』 45 (2019), 7-29.
- 클레인, R. W., 『사무엘상』, WBC 성경주석 10, 김경열 역, 서울: 솔로몬, 2004.
- Alt, A., “Die Staatenbildung der Israeliten in Palästina”, A. Alt, *Kleine Schriften zur Geschichte des Volkes Israel*, band II, 3. Aufl., München: C. H. Beck, 1964, 1-63.
- Althann, R., “1 Sam 13,1: A Poetic Couplet”, *Bib* 62 (1981), 241-246.
- Bar-Efrat, S., *Das Erste Buch Samuel: Ein narratologisch-philologischer Kommentar*, BWANT 176, Stuttgart: Kohlhammer, 2007.
- Bayer, B., “Saul. In the Aggadah”, F. Skolnik, ed., *Encyclopedia Judaica*, vol. 18, 2nd ed., Macmillan: Keter Publishing House, 2007, 80-83.
- Berges, U., *Die Verwerfung Sauls: Eine thematische Untersuchung*, FzB 61, Würzburg: Echter, 1989.
- Bin-Nun, Sh. R., “Formulas from Royal Records of Israel and of Judah”, *VT* 18 (1968), 414-432.
- Campbell, A. F., *1 Samuel*, FOTL 7, Grand Rapids: Eerdmans, 2003.
- Dietrich, W., *David: Der Herrscher mit der Harfe*, Biblische Gestalten 14, Leipzig: Evangelische Verlagsanstalt, 2006.
- Dietrich, W., “Die Erzählungen von David und Goliath in I Sam 17”, *ZAW* 108 (1996), 172-191.
- Dietrich, W., *Samuel: 1 Sam 1-12*, BK.AT VIII/1,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2010.
- Dietrich, W., *Samuel: 1 Sam 13-26*, BK.AT VIII/2,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2015.
- Donner, H., *Geschichte des Volkes und seiner Nachbarn in Grundzügen. Teil 1: Von den Anfängen bis zur Staatenbildungszeit*, GAT 4/1, 3. Aufl.,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00.
- Edelman, D. V., *King Saul in the Historiography of Judah*, JSOT.S 121, Sheffield: JSOT Press, 1991.
- Edelman, D. V., “Saul”, D. N. Freedman, ed., *ABD*, vol. 5, New York: Doubleday, 1992, 989-999.

- Ehrlich, C. S., “Philister” (erstellt: Mai 2007), accessed 10 April 2021 from <https://www.bibelwissenschaft.de/>.
- Ehrlich, C. S., *The Philistines in Transition: A History from ca. 1000-730 B.C.E.*, Leiden: Brill, 1996.
- Finkelstein, I., “The Emergence of the Monarchy in Israel: the Environmental and Socio-Economic Aspects”, *JSOT* 14:44 (1989), 43-74.
- Finkelstein, I., “The Philistines in the Bible: A Late-Monarchic Perspective”, *JSOT* 27:2 (2002), 131-167.
- Firth, D. G., *1 & 2 Samuel*, Apollos Old Testament Commentary, vol. 8, Nottingham: Apollos, 2009.
- Flanagan, J. W., “Chiefs in Israel”, *JSOT* 6:20 (1981), 47-73.
- Frick, F. S., “Social Science Methods and Theories of Significance for the Study of the Israelite Monarchy: A Critical Review Essay”, *Semeia* 37 (1986), 9-52.
- Galil, G., “The Chronological Framework of the Deuteronomistic History”, *Bib* 85 (2004), 413-421.
- Gesenius, W., *Hebräisches und Aramäisches Handwörterbuch über das Alte Testament*, 18. Aufl., Berlin: Springer Verlag, 1987.
- Gilmour, R. and Young, I., “Saul’s Two Year Reign in 1 Samuel 13:1”, *VT* 63 (2003), 150-154.
- Gunn, D. M., *The Fate of King Saul: An Interpretation of a Biblical Story*, JSOT.S 14, Sheffield: JSOT Press, 1980.
- Gunnweg, A. H. J., *Geschichte Israels: Von den Anfängen bis Bar Kochba und von Theodor Herzl bis zur Gegenwart*, 6. Aufl., ThW 2, Stuttgart: Kohlhammer, 1989.
- Hentschel, G., *Saul: Schuld, Reue und Tragik eines Gesalbten*, Biblische Gestalten 7, Leipzig: Evangelische Verlagsanstalt, 2003.
- Jepsen, A. and Hanhart, R., *Untersuchungen zur israelitisch-jüdischen Chronologie*, BZAW 88, Berlin: Walter de Gruyter, 1964.
- Kaiser, O., “Der historische und der biblische König Saul (Teil I)”, *ZAW* 122 (2010), 520-545.
- Kaiser, O., “Der historische und der biblische König Saul (Teil II)”, *ZAW* 123 (2011), 1-14.
- Kessler, R., “Chieftdom oder Staat? Zur Sozialgeschichte der frühen Monarchie”, R. Kessler, *Studien zur Sozialgeschichte Israels*, SBAB 46, Stuttgart: Katholisches Bibelwerk, 2009, 148-166.

- Kessler, R., *Samuel: Priester und Richter, Königsmacher und Prophet*, Biblische Gestalten 18, Leipzig: Evangelische Verlagsanstalt, 2007.
- Knauf, E. A., *Die Umwelt des Alten Testaments*, Stuttgart: Verlag Katholisches Bibelwerk, 1994.
- Knauf, E. A., "Saul, David, and the Philistines: From Geography to History", *BN* 109 (2001), 15-18.
- Kreuzer, S., "Saul – not always – at War: A New Perspective on the Rise of Kingship in Israel", C. S. Ehrlich and M. C. White, eds., *Saul in Story and Tradition*, FAT 47, Tübingen: Mohr Siebeck, 2006, 39-58.
- Kreuzer, S., "Saul war noch zwei Jahre König …: Textgeschichtliche, literarische und historische Beobachtungen zu 1 Sam 13,1", *BZ* 40 (1996), 263-270.
- Kreuzer, S., "»War Saul auch unter den Philistern?«: Die Anfänge des Königtums in Israel", *ZAW* 113 (2001), 56-73.
- McCarter, P. K., *I Samuel: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Notes and Commentary*, AncB, vol. 8, New York: Doubleday, 1995.
- McFall, L., "The Chronology of Saul and David", *JETS* 53 (2010), 475-533.
- Miller, J. M., "Saul's Rise to Power: Some Observations Concerning 1 Sam. 9.1-10.16; 10.26-11.15 and 13.2-14.46", *CBQ* 36 (1974), 157-174.
- Mommer, P., "Saul", G. Müller, u. a., hrsg., *TRE* 30, Berlin: Walter de Gruyter, 1999, 57-59.
- Niemann, H. M., *Herrschaft, Königtum und Staat: Skizzen zur soziokulturellen Entwicklung im monarchischen Israel*, FAT 6, Tübingen: Mohr Siebeck, 1993.
- Niemann, H. M., "Nachbarn und Gegner, Konkurrenten und Verwandte Judas: Die Philister zwischen Geographie und Ökonomie, Geschichte und Theologie", U. Hübner and E. A. Knauf, hrsg., *Kein Land für sich allein: Studien zum Kulturkontakt in Kanaan, Israel/Palästina und Ebirnäri für Manfred Weippert zum 65. Geburtstag*, OBO 186,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02, 69-91.
- Niesiolowski-Spano, L., *Goliath's Legacy: Philistines and Hebrews in Biblical Times*, Wiesbaden: Harrassowitz Verlag, 2016.
- Noth, M., *Geschichte Israels*, 10. Aufl.,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86.
- Richter, W., *Die sogenannten vorprophetischen Berufsberichte: Eine literaturwissenschaftliche Studie zu 1 Sam 9,1-10,16, Ex 3f. und Ri 6,11b-17*, FRLANT 101,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70.
- Schmidt, L., *Menschlicher Erfolg und Javes Initiative: Studien zu Tradition*,

Interpretation und Historie in Überlieferungen von Gideon, Saul und David, WMANT 38, Neukirchen: Neukirchener Verlag, 1970.

Seebass, H., “Die Vorgeschichte der Königserhebung Sauls”, *ZAW* 79 (1967), 155-171.

Sergi, O., “Saul, David, and the Formation of the Israelite Monarchy: Revisiting the Historical and Literary Context of 1 Samuel 9 - 2 Samuel 5”, J. J. Krause, O. Sergi, and K. Weingart, eds., *Saul, Benjamin, and the Emergence of Monarchy in Israel: Biblical and Archaeological Perspective*, Atlanta: SBL Press, 2020, 57-92.

Stoebe, H. J., “Zur Topographie und Überlieferung der Schlacht von Mikmas, 1 Sam 13 und 14”, *ThZ* 21 (1965), 269-280.

Stolz, F., *Das erste und zweite Buch Samuel*, ZBK.AT 9, Zürich: Theologischer Verlag, 1981.

Tsumura, D. T., *The First Book of Samuel*, NICOT, Grand Rapids: Eerdmans, 2007.

<Abstract>

**A Suggestion for Translation of 1 Samuel 13:1:
The Age of Saul's Accession and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Two Years'**

Keungjae Lee
(Mokwon University)

1 Samuel 13:1 contains important information about the age of Saul's accession and reign of Saul, the first king of Israel. However, many Old Testament scholars doubted the historical reliability of this information. The Hebrew text of this verse does not mention a detailed number regarding the age of Saul's accession, but suggests a relatively short, two-year reign of Saul.

Why is the detailed age of Saul's accession not mentioned in 1 Samuel 13:1a? The reason is that it was not possible to know exactly when Saul, who started as a military leader of the chiefdom centered on the tribe of Benjamin became the king of Israel. For this reason, the age of Saul's accession had to be left blank.

Given the historical context where the age of Saul's accession is unknown, the total duration of Saul's reign would neither have been known because information on the age of a king's accession is essential to mention the entire reign of a king. After all, the 'two years' mentioned in 1 Samuel 13:1b does not mean Saul's entire reign lasted two years, but can be seen as referring to a specific two-year period during Saul's reign because the entire content of 1 Samuel 13-14 is far from the situation in the first two years of Saul's reign. For example, a significant number of standing armies were organized (1 Sam 13:2, 15) and the existence of the Philistines cannot be confirmed in Gibeah, the capital of Saul's kingdom, where the Philistine garrison previously stayed (1 Sam 13:2; 14:2). Above all, Saul and Jonathan attacked the Philistine garrison at Geba (1 Sam 13:3, 16) and Michmash (1 Sam 13:23; 14:11, 31), and expelled them from Israeli territory (1 Sam 14:46).

This fact indicates that Saul's reign had passed considerably, and that his system of governance was relatively stable. In other words, it means the last two years after Saul's first victory in the battle against the Philistines (1 Sam 13-14), that is, from the moment he escaped from the political influence of the Philistines until his death at the Battle of Gilboa (1 Sam 31). Through such acts

of Saul in the last two years, Saul is regarded as the first king of Israel who changed the former political dynamics of subordination to the Philistines.